**2002 After Iron-Age (Insa Art Center, Seoul, Korea)**

**부서진 폭탄껍질의 실내악 - 임옥상 미술전 '철기시대 이후를 생각한다'에 부쳐 / 김정환 (시인)**

내게 미술은 공간 속으로 공간을 심화하는, 즉 장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한계 속으로 극복’하는, 그래서 매력적인 예술장르다. 물론 모든 예술 장르가 그렇지만 미술은 연극-영화보다 가시적으로, 공간-응축적으로 그렇고 음악이 무엇보다 시간-응축적으로 그렇다. 남한의 80년대 예술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민중미술은 (전시)공간과 정치적 영향력을 ‘공히’ 최대화하는 동시에 천박화했고, 그러므로 민중운동의 퇴조에 따른 공간과 정치적 영향력의 ‘격앙스러운’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공간이 심화되지만, 동시에 추상-부조리화한다. 임옥상 미술은 ‘천박화’와 ‘추상화’ 경향 양자에 대한 강력한 ‘예술적’ 저항인 동시에, 당연히, ‘예술적이므로 정치적인’, 희귀한 경우다. 임옥상의 걸작들은 미술이 ‘공간 속으로 심화’ 하는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는, 서야 하는, 가장 광범하고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그래서 예술적인 장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그렇다. 그의 미술은 극좌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우경화 하는 ‘미술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임옥상 미술은 적절하게 그리고, 당연히, 고통스런 경로를 통해 ‘철기 시대’에 이르렀다. 사회의식 혹은 투쟁은 예술가의 미적 전망을 제한하고 형식/내용 균형을 손상시키고 ‘혁명-유토피아적’ 환영을 진부한 미학적 관습으로 복제, 자기 자신의 현실주의를 배반하기 십상이지만, 임옥상 미술은 다르다. 가장 ‘활동가적’(그의 ‘운동’분야 는 정말 폭넓어서, 환경에서 남북통일을 거쳐 궁극적인 세계평화 문제에까지 이른다.) ‘이면서 또한’ 남한의 가장 세련된 장면 중 하나로, 현장과 생짜로 부딪치는 육체의 팽팽한 근육이 어느새 저항정신과 해학, 그리고 조형미를 원숙하게 조화시킨 당대의 명품으로 전화되어있는 것이다. 그의 ‘땅’ 시대(보리밭 연작)는 여러 겹 갈등의 시대였다 자연과 문명의, 고향과 전쟁 기억의, 불안과 충동의,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열망과 경악의, ‘원(原) 색-형태’와 ‘형태 우선적인 색’ 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들은 (화해가 아니라) 죽음-웃음을 폭넓게 감당하는 오페라 부파(Buffa)의 미학으로 완숙해졌다. 그리고, 그렇게, 스테인레스와 고철 작품들에서 그는 더 ‘예술가적’이다. 그의 ‘포크와 나이프, 스푼’ 스테인레스 작품들은 인간 문명에 대한 ‘빛나는-토하는’ 비판(‘꽁치‘)이며 ‘그리고 또한’ 예술=먹는 행위(‘매달린 물고기’)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기도 하다.

숱한 생선을 먹어 치운 포크와 나이프, 스푼들을 ‘소재 혹은 매질’로 한 마리 생선을 형상화한다는 것. 주체와 대상의 역전, 내용과 형식의 역전, 먹는 것과 먹힌 것의 역전, 먹는 문화의 예술화, 즉 예술의 회-초밥화 가 아니라 회-초밥의 예술화, 혹은 그 둘 사이 절묘한 균형 혹은 역전, 지느러미를 이루는 나이프, 비늘과 눈을 이루는 숟가락, 그리고 고생대 동물을 연상시키는 포크 이빨…. 이쯤 되면 우리는 미술의 색깔과 형상으로 세계를 ‘우선’ 변혁하려는 예술가 정신의 치열한 내화가 마침내 대중문화, 아니 대중생활 문화, 아니 일상의 영역을 의미심장하게, 근본적으로 파먹어 들어가는 예술 장면에 달하게 된다. 반면, ‘큰 스푼’ 과 ’포크’는 질적이 아니고 양적이다. 이것은 종이부조 중 〈세한도〉가 어느 정도 공간을 심화하는데 반해 9. 11 테러를 다룬 〈아메리칸드림〉|, ||가 ‘소재적 표면’에 머무는 것과 같다.

남한 매향리 공군 사격장에 흩어진 미 제국주의 폭탄 껍질 고철 조각들로 만든 ‘아메리카 남근(=폭탄탄두)’ 연작들은 물론 미국의 고철 조각으로 미제의 야만과 참상을 드러내지만,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절묘한 ‘흩어짐의 여백’이다. 남근(팔루스) 조각상의 역사는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래 10만년이 넘는다. 철기시대는 언제? 임옥상의 팔루스들은 인간 형체를 이루는 조각(piece)과 조각(sculpture) 사이 야릇한 공간으로 그 선사의 세월을 머금는다,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심오한 우스꽝스러움을 유발하면서 ‘반미(反美)’가 자칫 뜻할 수 있는 소재-주제주의를 문명비판의 차원으로, 그리고 인간실존의 부파 미학으로까지 끌어올린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토속성과 모더니티를 얼버무렸던 피카소와 사뭇 다른 방식이고, 보다 실천적이면서 미학적인 방식이다. 아, 정말 기묘한 15만년의 응축들. 그 응축이, 녹슨 고철이 발하는 전쟁 자체의 참혹한 헐벗음의 미학 자체를 유구한 희망과 전망력(展望力)의 형상으로 전화한다. 반면 스테인레스(스푼)와 고철(매향리 잔해물)을 합한 ‘철의 꿈’ 연작은, 과감하지만 과도적이고 아직 절충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도 그는 끝내 길을 열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시회의 절정은 폭탄 껍질들을 주축으로 만든 식탁, 식탁의자, 티테이블, 회의용 탁자와의자 등 ‘최신식’ 가구들이다. 길게 반쪽 난 매향리 폭탄의 육중한 금속성이 예술가의 손길을 받아 세련되고 미려한 고전적 단아의, 목성(木性)을 발하고 급기야 검고, 검을수록 섹시한 고급 오디오 기기 ‘껍질’에 달하고(회의용 탁자), 옹근 박격포탄 껍질 4개가 여자의 날씬한 다리보다 앙증맞은 균형을 상단 유리 속으로 내비친다(티테이블). 그렇다. 공간-응축의 미술이, 놀랍게도 폭탄 껍질을 매개로, 시간-응축의 실내악에 달하는 순간이고, 폭탄의 자본주의를, 놀랍게도 폭탄껍질을 매개로, 예술의 사회주의로 유인해내는 광경이다. 위 과정을 질적으로 종합한 결과인 이 작품들로 하여 우리는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자’ 는 사회주의적 구호의 구호주의를 극복할수 있다,

**2002 After Iron-Age (Insa Art Center, Seoul, Korea)**

**Chamber music of the shattered bombshells-To Lim Ok-Sang Art Exhibition 'After Iron-Age'  
Kim Cheong-Whan (poet)**

Art is fascinating to me because it deepens spaces 'into'(not out of) spaces, so overcomes its limits 'into'(not out of) limits. Of course all arts-genres are so because so but art is more visibly, space-condensingly so than theatre or cinema, and music is more time-condensing than other arts-genres. As one of the leading arts-movements of 1980's South-Korea, Minjung(or populist) Art Movement maximized but at the same time shallowed 'both' (exhibition) spaces 'and' political influence and, was to suffer the 'astonished' contraction of both after the retrogression of Minjung Movement in general. And, for the time being, spaces are deepening but abstractive and absurdist. Artist Lim's works are 'artistic' resistance against these two tendencies and at the same time, deserved, but rare case of 'political because artistic'. Lim's masterpieces confirms art as 'both' into-space deepening 'and' most extensive, comprehensive, fundamental avant-garde world-reforming, therefore 'artistic' genre. Yes. His works heal 'art-disease' of turn rightist against extreme leftist.

Methinks Lim's painting & sculpture art has arrived 'age of iron', appropriately and, of course, by the painful road. In most case social consciousness or struggle limits artists aesthetic vision and damages form/content balance and falls into revolutionist-utopian illusion of hackneyed conventionality, betraying realism of his own. Lim's art is not the case. He is most activist(his concern is wide, from environmental over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to ultimate World Peace) 'and also' one of the finest artist of South Korea. His artworks are made in the scene of action but, instead of ending as performance or stiffening into dead still-life, metamorphoses struggles muscle into flexible, humorous, formal-beauty text of modern classic. His 'earth' age(Barley Field series) was that of multiple conflicts, between nature and civilization, heimat and war memory, anxiety and impulse, realist and modernist, yearning and consternation, 'primary colour-form' and 'form-primary colour' and that conflicts matured into (not reconcilement) deep, wide coverage of death-laughter, aesthetics of Opera Buffa. Then, so, he is more of 'artist' in creating stainless and old iron work. His 'forks and knife, spoon' stainless works are shining-vomitting criticism of human culture(mackerel) 'and also'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art=eating('a hanged fish').

Forks and knifes, and spoons that have forked, knifed, and spooned so many fishes makes up a fish. Reversal of eaten and eating, subject and object, content and form. 'Artization' of eating culture, not 'sushization' of art but artization of sushi or exquisite balance/reversal between two. Fin-knifes, scale-spoon-eyes, and paleozoic creature's teeth-forks. We are witnessing innermost spirit of avant-garde artist who priorily reforms world with colours and (content-overcoming)forms at last forking, knifing, spooning mass culture, mass life, everydayness of everyday meaningfully and fundamentally. On the other hand, 'Big spoon' and 'Fork' are not. qualitative, only quantitative. The same case occurs in paper-relief works. 'Sehando' more or less deepens (into) space, but 'American dream' I, II about 9. 11 terror remain on 'material surface'.

'American Phallus(=warhead)' series are made of junks of U.S. imperialism bomb-shells scattered in South Korea Mae-Hyang-Ree air-force rifle range. These sculptures of junk pieces of course muckrake barbaric disaster caused by U.S. imperialism. But, methinks, more important aspect is a kind of, exquisite margin of scatteredness. (Pre-)History of phallus sculpture covers more than one hundred-thousand years. And age of iron? Urn's Phallus series entertain prehistory time and tide in those queer space between 'pieces' and 'sculpture' that make up human figure. And depth & gravityweight of that prehistory time & tide induces profound buffoonery that raises anti-USA subject to dimension of culture criticism, and higher to Buffa-Aesthetics of human existence. This method is different from that of Picasso, who confused and compromised african localities and modernity. Urns way is more praxis-orthodox, and more aesthetic. 0, really curious condensations of 150,000years. That condensation transforms wretched-ragged aesthetics of war itself into forms of everlasting hope and vision-power. On the other hand, 'Dream of iron' series are, as stainless(spoons) 'plus' junks(Mae-Hyang-Ree remains), bold but transitional, and remain eclectic. Of course he will open his road even this way but.

However, climaxes of this exhibition are bombshells composing cores of 'ultra-modern' furniture of 'eating' table and chairs, tea-table, meeting table and chairs, etc. Heavy 'metallic' of long halves of a air-to-earth missile warhead emanate through warm hands of an artist refined, magnificent and graceful, elegant 'woodness' of classic, and in the end attain 'more black, sexy' of the highest audio equipment - 'shells'(meeting table), balance of four unbroken mortar shells seen below glass-sheet are cute, prettier than sheen-slender legs of women. Yes. At this moment, surprisirigly through bombshells, space-condensing art attains time-condensing chamber music, and at this spectacles, surprisingly through bombshells, capitalism of bombs is attracted into socialism of art. With this chamber music of bombshells as qualitative synthesis-result of above-mentioned processes, we can overcome sloganism of socialist slogan 'Melt swords and guns into plowshares'.